



제277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일문일답)입니다.



김민숙 의원

“특수학교 설립 추진 방안”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환경 개선 방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

◎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그런 5월의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 거대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특수학교 설립 추진을 공론화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요즘에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많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계시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감사합니다.

◎ 김민숙 의원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질문하는 부분을 많이 공부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희 잘 한번 이번 시간에, 효과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언론보도로 나온 뉴스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7분 영상자료 종료)

교육감님, 방송에 출연하셨으니까 이 뉴스 보셨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봤습니다.

● 김민숙 의원

가원학교는 34학급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2024년 현재 49학급으로 15학급이 초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개교 당시에는 24학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후 1주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는 34학급으로 만든 학급이 35학급으로 이미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과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북부지역의 특수학교 추가설립 논의가 생겼고 9년 만인 2021년도에 대전해든학교가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맞습니다.

● 김민숙 의원

지금 현재는 맹학교, 성세재활학교, 혜광학교, 가원학교, 해든학교, 원명학교까지 포함해서 1,119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맞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김민숙 의원

교육감님은 가원학교 관련해서 보고도 받으셨을 거고, 혹시 방문도 해보셨나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대전가원학교를 방문해서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학교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민숙 의원

저도 가원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아침 통학현황이나 급식 그리고 체육활동 등 가원학교의 현재 모습을 점검하고 왔는데요, 저는 4월 25일에 갔으니까 교육감님이 갔다 오신 이후 가장 최근에 간 사람일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1분 영상자료 종료)

정상적인 교실 내부는 한 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뒤에 3분의 1 정도 잘라서 다른 교실로 또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매우 좁은 곳입니다.

그리고 교무실도 한두 개가 아니라 6개의 교무실이 있는데요, 일반교실의 뒷공간을 잘라서 선생님들께서 교육 준비를 하고 계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강당과 급식실, 이런 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들의 기질적 특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위기관리시스템도 운영하고 또 급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운영해 주시는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김민숙 의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의 대처방안으로 마련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당연히 분리되어서 해야 하는데, 조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비상벨이 있는 것은 여러 개 학급의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돌발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다른 반 친구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과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고 행동에 있어서 과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선생님께서 비상벨을 누르면 각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은 현광판에 번호가 뜨면 그때는 무조건 달려갑니다.

‘388, 833’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학교에는 아예 어디가 몇 번인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을 제외한 모든, 실무원들을 포함해서 교사들은 벨이 뜨면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시스템, 저는 119구조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처한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장애학생들의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 김민숙 의원

지금 현재도 가원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과밀한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가원학교의 과밀해소 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가원학교 증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위해 학교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으로는 2025년 9월 증축을 목표로 사업비 7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사동 16실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24년 예산은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전가원학교 증축을 통해서 대전가원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우리 교직원들이 그야말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지금 49학급이 늘어나는데 16개의 교실을 증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34학급으로 했는데 49학급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15학급이 늘어난 건데 16개를 증축한다고 해서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미술실이라든지 전문으로 해야 되는 전공과목이라든지 특별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만큼 더 보완되어야 하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축이 답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증축이 된다고 해서 학급 수와 학생 수가, 학생 수를 더 늘릴 생각은 아니신 거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 김민숙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많이 염려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안에서 사실은 다른 방안들을 더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증축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저는 16개의 교실을 증축한다고 해서 과밀로 인한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번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7분 영상자료 종료)

원래는 가원학교에 5대의 통학버스가 있었는데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8대의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댁에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교육청까지 몇 분 정도 걸리시나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 김민숙 의원

그런데 가원학교 아이들은 평균 60분 이상 걸리고요.

또 해든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95분, 많이 걸리는 아이들은 95분 그리고 적게 걸리는 아이들은 조금 더 적어서 평균 시간이 80분이 넘습니다.

그러면 등하교로 거의 3시간 동안 차에서 학교 가고 오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거 한 달만 해도 정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특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도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학교에 도착해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화장실이 급한 아이들을 먼저 나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먼저 학교 안으로

보내고 나머지 아이들은 또 대기시간이 길어집니다.

한 차가 앞으로 오면 그 아이들이 다 내릴 때까지 모든 교사와 모든 실무원들이 다 나와서 각자 반 아이들의 양쪽 손을 잡고 올려다 놓고 또 오고,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차가 다 들어올 수 없는, 협소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상 시간이 늘어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다행이고 학교에서 잘 지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님들은 일단 등교시간부터 너무 지치게 되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에 구토하는 아이들도 제가 목격했구요.

기본 운행시간만 60분이 넘고 학교에 도착해서도 버스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실 텐데요, 이에 따라서 교육감님께서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실제적으로 우리 대전교육청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특수학교 통학노선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의견도 수렴하고, 증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것을 잘 추진해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여건 개선을 아주 전적으로 지원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증차가 저도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일단 차를 세워둘 공간조차 없고 또 증차하면 운전기사나 그에 따른 실무원들이 늘어나겠지요, 그분들이 학교에 있어야 될 공간조차도 없어서 증차하는 것도 지금은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특수교육과와 긴밀한 대화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찾았던 게 뭐였냐면, 시청에 있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에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조활동사를 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예산이나 이런 것은 국비 70에 우리 대전 시비가 30% 들어가는데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조활동사를 통해서 아이의 학교 등교를 돕고 또 부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축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간 간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증차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보조활동사라든지 도우미, 이런 인력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서 그야말로 장애학생들이 통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대전시에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이 차 안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학교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조금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적극 활용해 주시고, 홍보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지역에 공립특수학교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사안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2022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설립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김민숙 의원

지금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용지확보 현황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용지로 확보 가능한 유휴부지 중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또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사업지에 특수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전시와 특수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협의 중인 개발사업지가 있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서남부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은 서남부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교육활동 보장 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과밀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발달장애영역 학생을 위한 영유아, 초·중·고 전공과 과정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학급 214명 규모로 2028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확보되는 즉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건립과 개교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민숙 의원

교육감님, 제가 알기로는 학교용지 확보 추진을 위해서 지금 세 군데 정도,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서, 또 한 군데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에서의 부분 그리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학하초 제외하는 요청에 대해서, 세 군데를 놓고 고민도 하시고 검토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은 아직 없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 12월에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한 학교용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검토한 결과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거나 지리적 여건이나 학교 설립이 가능한 법적 요건 등을 충족하는 부지로 현 학하초를 내정하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2023년 3월에 해당 부지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포함되어서 개발제한으로 추진이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 대전시와 같이 협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김민숙 의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네요, 그렇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지 내에 특수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와 교육청 간 공동협의체인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를 개최해서 특수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추진하는 서남부스포츠타운 개발사업 또 탐립·전민지구 등의 개발예정지에 특수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김민숙 의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지가 사실 확정되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20년 안에도 학교가 지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고 대전시에서도 개발사업지 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청이 협의가 잘되면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제가 시정질문 답변요지서를 통해서 회신받았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이 점 참고하셔서 대전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협력을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학교용지 확보는 안 됐는데 2028년 3월에 개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절대적으로 2028년 3월에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2028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땅도 아직 없는데, 적극적으로 마술을 한번 부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28년도면 지금 몇 년 남았지요, 많이 남았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김민숙 의원

그동안에 있는 아이들은 또 과밀 상태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거 하나만 어디서 땅에 툇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학교 통폐합을 통한 부지 확보 방안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도 시행하고 있고 또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 김민숙 의원

학령기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일반 학교는 통폐합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계속 학교 수가 해마다 늘어나지만 또 그에 반해서 아시다시피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통폐합을 통해서 폐지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특수학교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 문제점이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완료한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 결과를 반영해서 금년 2월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운영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1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50명 이하 학교를 기준으로 대상 학교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김민숙 의원

예, 통폐합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쭙봤어요.

일반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하는 데 법적으로 어려운 게 있느냐,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알고 있고요.

이런 결과에 따라서 많은 교육청에서는 학교 통폐합 시 응답 학부모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은 75%로 되어 있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김민숙 의원

그것을 50%로 완화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학부모 동의 비율 기준이 높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학교 통폐합 의견조사에 응답한 학부모님이 50% 이상 동의하는 경우 학교 통폐합이 결정되는 것으로 비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학교 통폐합의 경우에는 대상 학교 학부모님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 김민숙 의원

그렇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아주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민숙 의원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들어오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많이 겁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없는 가족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1명 정도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수학교도 너무 외곽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통폐합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김민숙 의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학교 과밀학급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요, 이

부분이요.

지금 당장은 부지를 찾아서 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당연히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2021년 3월에 아까 나왔던 대로 대전해둔학교를 개교했지요.

◎ 김민숙 의원

예.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근데 그때 주민분들이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하면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예,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부산 쪽에서 실제로 보니까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올랐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에서 하실 필요 없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지역 주민들도 다 동의해 주십니다.

● 김민숙 의원

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 운영 실적은 어떨지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16년에 제정된 이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해든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다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는 특수교육기관 설립의 일정 또 위치, 규모, 시설, 재정 등과 관련해서 특수교육기관 설립 준비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지요.

그런데 2016년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2021년 3월 개교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해든학교의 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남부 지역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했어야 하나 아직 학교 용지가 구체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특수학교 설립 준비사항 등을 심의하기가 어려워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 김민숙 의원

예, 5년간 개최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 등 6개 광역시·도에서는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일반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런데 일부 시·도의 경우에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아서 특수학급 설치 의무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해당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학교시설 제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학급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교육청에서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사실 77.3%입니다, 높은 편입니다.

꼭 조례 제정이 아니어도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김민숙 의원

예, 교육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77%라고 하셨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77.3%입니다.

● 김민숙 의원

77.3%,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반 학교가 551개교이고 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283개교입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77.3%는 한 학교의 학급 수로 따졌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학급 수로 따지면 더 많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77.3%면 20 몇 퍼센트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걸 의무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과밀 특수학급만 해도 53학급입니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만 있는 데 안에서도요, 이미 과밀이 53학급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학교에 지금 없는 곳에 특수학급이 마련되면 이 과밀 학급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가까운 곳의 학교 다니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 의무로 설치해서 100%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하여튼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학급을 더 증설하고 아주 내실 있게 잘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은 일반 교육과정도 같이 공통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에게 맞는, 장애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맞춤형 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특수학급이 더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되고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잘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아시겠지만 일반 교육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개인차 변인이라고 합니다.

일반 아이들도 개인차로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부실한 애들은 맞춤형 수업도 해야 되고 모든 개인에 맞는 학습 방법을 도입해서 학습을 해서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 장애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장애학생들은 장애교육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애학생들도

일반 학생들이 하는 교육과정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장애학생들의 신체와 어떤 정신적인 면에 맞는 특수교육, 특별교육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이 더 아주 내실화되고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김민숙 의원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늘려나간다고 하면 또 현재 거대 특수학교 과밀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설립도 함께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처방안으로 지금 특수학급이라든지 통폐합 학교를 잘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와 함께 또 학교용지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우리 대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김민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은 제가 이장우 시장님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관할과에서 적극적인 답변을 주셨고 적극적으로 학교용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돕겠다고 해주셨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잘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믿고 또 교육청에서 더욱더 깊은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전시는 출생률 하락에 따라서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부족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가원학교와 대전해든학교의 과밀상황은 단순 증축을 통해서 교실 수를 늘리고 교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넘어섰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아이들과 또 교사들을 분산시키고 특히 주거지역 가까운 곳에 전략적으로 특수학교를 배치해서 등학교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이라도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더욱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기도 하고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약속하셨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해주시겠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학생과 교사, 실무원들 및 관련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과 또 장애를 가진 아이들 모두가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 제 마음과 동일하게 설동호 교육감님, 이장우 시장님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